

1. 감미로운 음악과 독특한 소재로 많은 관객들을 환상의 문 앞으로 인도했던 애니메이션 <피아노의 숲>(2008). 코지마 마사유키(Koujima Masayuki) 감독의 <피아노의 숲>은 걸으면 순수한 우정과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피아노를 매개로 한 현실과 상상, 시각과 비시각의 세계를 일시에 보여준다.

실제로 이 장편은 현실과 판타지를 오간다. 빛이 숲에 드리우면 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정경이 펼쳐지고, 주인공 카이가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진실인지, 아니면 연주가 끝났을 때의 세상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열람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주가 멈추면 숲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환상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며 고요는 냉정한 현실에 순응한다.

필자는 영화에서의 신(scene)처럼 사라 게스만(Sara Gassmann)의 작업에서 서로 다른 층위를 엿본다. 하지만 명확하진 않다. 그럴기에 그건 경계의 공간이요 시간의 중첩이며, 분간과 구획이 모두 접히는 접경의 영역으로 읽힌다.

금천예술공장에서 처음 접한 그의 작업은 공간과 사물에 투영되는 공유의 빛에 의해 때로 몽롱하게, 혹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타자를 서성거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거친 듯 자유롭게 번진 색과 드로잉은 타자의 감정을 환류토록 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미지를 소환하는 듯 다가섰다. 필시 현실적 공간에서 있으나 그 이면까지 침투하는 이미지들은 상치적인 관계를 품은 채, 빛이 있기에 색이 있고 색이 있기에 빛의 존재를 되묻는 접점의 여백 아래 존재했다. 그것은 차라리 물질과 비물질적 상태까지 포박하는 병립적 구성 아래 허상과 실재, 현실과 상상 혹은 환상과 리얼리즘의 세계를 이중 플롯(plot)에 가까웠다.

오늘 다시 접한 그의 작품 역시 인지 가능한 형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감정이 담긴 드로잉, 헤쳐진 듯 느껴지나 일정한 질서 아래 놓인 색과 면, 실존의 규정을 가로지르는 특정한 의미로서의 장소 등이 중첩된 채 각각의 음표처럼 순환한다. 그리고 이 음표들은 타자의 감성적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어 운율의 언어를 내보인다. 일례로 2014년 작품 <frostmusterboden>은 다채로운 색들로 가득 찬 세상을 엿보게 하고, <wenn platten im erdinnern verschlungen werden>(2013) 등의 작품에선 작가의 시선으로 포획한 사랑, 그리움, 향수, 희망, 환희와 같은 가득한 세상을 감성적으로 수용한다. 특히 <was am endebleibt |2>(2014)와 같은 여러 자유분방한 회화에서는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옷장처럼 여러 상징적인 제스처와 색의 현란함으로 인해 통도(通道)를 거친 물리적 뮤온(muon)을 상정하는 듯 다가온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단지 시각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이미지가 빛의 무게와 동질을 이룸으로써 가능해진다. 마치 보르헤스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있는 정원』을 읽듯 자유의 환영을 일깨우고 꿈속이나 상상속의 영상처럼 다가오면서도 비현실적 공간의 이미지와 작가 자신의 감성적 편린들이 겹쳐지며 구체적인 시각의 단편들이 하나의 장에서 버무려져 호흡하는 양상을 내보인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콘크리트에 직사각형의 유리를 세운 그의 또 다른 작품 <miralite-evolution>(2014)을 비롯해, 그의 2015년 작품 <blind mirrors in the forst N°19> 등의 근작에서도 이어진다. 이 작품들은 그것이 놓인 장소성에 보다 눈길을 주도록 하지만, 공간과 사물-빛과 색-인지와 비인지의 중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안팎이 통합된 채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세계를 환하게 열어 놓는다. 그야말로 의식적인 상황에 주술적인 기호들을 얹음으로써 현실을 저버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세계에 다가서려는 태도, 고정성을 지닌 어떤 하나에도 시선을 달리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엇에 대한, 그리고 실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관한 전복과 연장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는 게 옳다.

그렇다고 전시 공간 내부를 차지하고 있는 오브제와 주변 색으로부터 이것이 비록 쉽게 간파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되레 수수께끼 같이 다가오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특질들이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라 게스만 작업의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2. 사라 게스만의 작품들에선 인간이 지각하는 세계가 아닐지라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상상의 세계를 포박할 수 있다. 그건 빛과의 조우로 충분히 확장 적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다가설 수 없는 층위라는 동시성에 관한 내레이션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시성이 결여되었다하여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으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닌 세계를 믿고 발을 담근 채 시선 너머의 사실적인 세계를 꺼내어 모두를 대상으로 되새김 하는 지도 모른다.

헌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라 게스만의 작업은 거의 대부분 현실의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환기시키고, 구두로 표현하기 난해한 심적인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다니엘 뷰렌(Daniel Buren)이나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맨털 크리닉(Mental Klinik)의 미끈한 여백이 아닌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공간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비실재적인 것과 관련된 파편화된 단상들이 어떻게 그려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그의 미적 추(錘)가 걸려 있다. 이것이 오늘날 사라 게스만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단초(端初) 또는 실마리이다.

필자가 마주한 사라 게스만의 작업은 ‘단 하나 혹은 단 한 번의 끝이 아닌 여러 가지의 끝이 있거나 아예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 그의 작품의 영감은 일차적으로 나를 포함한 현실에서 비롯되나, 자신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예술적 시야를 개방하며, 주변의 환경에 맞춰 직감으로 수용하려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작가 자신의 내부로부터 출발한 이 감각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주변과 하나하나 반응하며 시공을 밝게 물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마치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시간의식에 준하는 듯, 혹은 시간의식이야말로 감각하는 것인 양 우리 앞에 모습을 내보인다. 그리고 사라 게스만은 빛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시공을 넘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이 되어 새로운 시공을 형성한다.

한편 사라 게스만의 그림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공은 빛이요, 빛은 시각에 잡히지 않으나 존재하고 그 존재성은 생명체로 발화하여 색깔로 휘황함을 알게 된다. 그의 그림에서 맏히는 잔상들은 빛을 품은 선(線)과 그 결정체인 색, 그리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조화의 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화면에 뭉뚱그려진 채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균형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엔 색과 면, 그 내층을 뚫고 끝없이 이입되는 빛과 함께 작가 자신마저 시간의 흐름이 된다. 이를 필자는 ‘진득한 즉흥’과 ‘숙고된 찰나’로 정의한다. 그의 근작들은 사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빛어내는 묘사 및 그와 유사한 방식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며, 사전 미감의 유추 등을 통한 형태분석에서도 그 의미는 낮아진다. 그 보단 존재자인 한에서의 존재자에 대한 원리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빛을 머금은 작품으로 아로새겨진 채 주위공간과 섞이며 교통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한결같이 인위적이지 않은 언어들이 부유하고 그 언어들은 화체(畫體)와 화체사이에서 현실의 공간과 그림 속 공간을 이어놓음을 보게 된다. 가끔은 순전히 관람자의 몫으로 내던져 놓기에 그의 작품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내면의 감동을 전달받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요되는 리듬을 읽는다. 흡사 한지(韓紙)의 그것처럼 종이의 특성과 물성을 그대로 살린 그의 회화나 미지를 영담하게 하는 설치 등은 보는 이들에게 한없는 시간의 회로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빛의 명멸을 통해서 말이다.

'Patient Improvisation' and 'Moment with Mature Consideration', Sara Gassmann

Hong Kyeong Han(art critic)

1. The animation film, <The Piano Forest>(2008) led many audiences to the fantasy with sweet music and its unique subject matter. At first glance, <The Piano Forest>(2008) directed by Koujima Masayuki seems to be about the innocent friendship and conflict, but in fact, it shows the world composed of the reality and imagination, perception and non-perception at the same time by using a piano as a medium.

Actually, this full-length film go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reality and fantasy. Once the lights shine over the forest, uncanny, mysterious scenes are unfolded, and once the protagonist, Kai plays the piano, the unknown world is opened, where we can't know that the world playing the piano is true, or the world after playing the piano is true. But, unfortunately when he stops playing the piano, the forest returns to its original state, the fantasy doesn't last, and silence adapts to the cold light of reality.

This writer also peeps at the different layers in the works of Sara Gassmann as the scene in the movie. But not clear. So, it is read as the boundary space, time reiteration and border line area where all the distinguishments and divisions are folding.

When I first encountered hers works at the Geumcheon Art Space, they made others wander 'betwe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r made them befog through the lights projected into the space and the objects. The colours and drawings which are rough and free made other's feelings reflux, and made the images which haven't experienced summon. While definitely stood in the realistic space, the images also infiltrating into the hidden side existed with the conflicting relation under the blank margin in the point of contact where asks the existence of the light again because the light makes the colour, the color makes the light. Rather, it is more like the dual plot including the illusion and existence, reality and imagination, or fantasy and realism under the compatible composition binding up the material and non-material state.

When I encounter hers works today again, there doesn't exist any form which is able to be cognitive, too. Nevertheless, the drawings reflecting the feelings, the colors and sides which at first sight, feel rifled through, but are under the fixed order, and the place as a specific meaning crossing the definition of existence circulate overlapped like each musical note. And this musical note becomes the element amplifying other's emotional situation and shows the metrical language. As a example, in <frostmusterboden>(2014), she made the people peep at the very colorful world, and in <wenn platten im erdinnern verschlungen werden>(2013), she accommodated the world full of love, yearning, homesickness, hope and joy captured by the artist's eyes. Especially, in many freewheeling paintings like <was am ende bleibt |2>(2014), she seems to present a physical muon who went through finding enlightenment by using the flowery colors and many symbolic gestures like the mysterious closet appearing in the movie, <The Chronicles of Narnia>.

This work is possible because this work doesn't satisfy only visual sense, but also through assimilating the shapeless image with the weight of the light. It awakens the illusion of freedom and feels like the images in the dream or imagination as if we read the novel, 『El jardin de senderos que se bifurcan』 written by Jorge Luis Borges, but as the images of the non-realistic space and the artist's own emotional pieces are overlapped, it

shows the pattern which the concrete visual pieces are mixed in one place and breathe.

We can also see these phenomena in his another works including <miralite-evolution>(2014) which builded the glass on the concrete, and in the recent work, <blind mirrors in the forst N°19>(2015), too. Although these works focus more on the placeness where the works were placed, they also open the world where causes the waves between space and object–light and color–recognition and non–recognition and unidentified by the naked eye because the inside and outside are integrated.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she hopes to reach to the another world while she doesn't abandon the reality through covering the occult symbol on the conscious situation. And she thinks that we can overturn something that we think about and the absolute trust on the reality, if we only take the different view on the fixed ones,

But, we can't easily perceive these from the objet and the surrounding colors which fill the interior of the exhibition space. No, rather, there is a aspect to be seen as a enigma. But,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also true that these features are placed as a characteristic of Sara Gassmann's works.

2. in Sara Gassmann's works, although it is not the world where the human being can't perceive, we can capture the imaginary world where people undoubtedly believe its existence. It is fully extensive through encountering with lights, and in other words, we can think that it connotes the narration about the simultaneity, the layers which don't have the access from the space and time. This describes the fact that although there is a lack of visibility, it doesn't mean that we can predicate that it doesn't exist, and in this account, she may rethink on all the objects after taking out the realistic world beyond the human view, believing in the invisible world.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Sara Gassmann's most works call more attention to the reality out of the reality, and show the mental things which are difficult to describe verbally. Especially, it is very interesting point that unlike the sleek blank margins in the works such as Daniel Buren, James Turrell, and Mental Klinik, she makes the people pay attention to space once again through making the familiar space unfamiliar. So, such a result is dependent not on how are the fragments of her thought relating to the non–real thing described, but on how are those things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his is her aesthetic axis. By using this clue, today, we can understand Sara Gassmann's world of art works.

Sara Gassmann's works which this writer encounters put a emphasis on expressing sensuously 'something that is not the only one or the only once end exists, but many ends exist and furthermore, even the end itself doesn't exist.' Although the artist's works are primarily inspired by the reality including herself, it is difficult to deny the aspect that she opens the artistic view from the happenings around her, and accommodates it intuitively through adjusting herself to her surroundings. This sense which comes from the artist's own inner point has a characteristic of lightening the time and space, responding to every surrounding with the flow of air. It appears to me that as if it is Emmanuel Levinas' time awareness, or the time awareness is to sense something. And Sara Gassmann forms a new time–space, becoming herself the time–space beyond space and time through her works made by the lights.

By the way, if you look fixedly at Sara Gassmann's works, you would know that the emptiness is the same to the lights, the lights exists in spite of being invisible to the human eyes, and the existence is splendid with the colors through being brought into the world as a life. In her paintings, we can discover the lines embracing lights, the color as a

crystal, the beauty of harmony crossing between time and space, and equilibrium beauty which has a energy with all the thing bundled up in one screen. But, in some cases, the artist herself become the flow with the lights coming in endlessly, penetrating into the inner layer. This writer defines this as 'patient improvisation' and 'moment with mature consideration'.

Her recent works are far distant from describing precisely the form of the object as it is or the similar ways, and in the analysis about the form through the inference from the pre-sense of beauty, that meaning is reduced, too. Rather, her works proceed to be mixed and interacted with the surrounding space while the consideration about the principle, 'A Being as far as it is a Being' and its cause is engraved as the works shining light. Especially, we can know that the consistent unartificial languages are floating, and the languages link real space and space in pictures, existing between the painting style(畫體) and theme of painting. Sometimes,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her works are completely left on the audience, the people who encounter with her works are internally moved by the space, and perceive the inward agitation without even realizing it. That is because, like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韓紙), her painting which preserv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the paper with its natural state or the installation spying on the unknown leads the audience to the endless circuit of time. Through the flickering lights.